

부모의 감독정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 정 자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별과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여중학생 1, 2, 3학년 12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학생의 부모의 감독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기통제력은 중간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 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이 내재화 문제, 총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여학생 모두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청소년이 어머니가 취업한 청소년보다 부모의 감독정도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을 한 학생보다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문제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았고, 부모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여학생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았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이 많았다.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모두 자기통제력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상에서 모취업여부, 부모감독정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만, 부모의 감독정도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이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을 가지면 문제행동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결과 청소년은 모의 취업여부보다는 부모의 감독이나 관심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에 따라 얼마나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모가 적절히 감독을 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 부모가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개발 시키기에 용이하므로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